

JIR NEWS

우리 집 이야기

2025
VOL.21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농생명바이오 지원시책 설명회
- 도내 농수산식품기업 판로개척 활성화
-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본격 가동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유관기관장 나서 “전북바이오포럼”가동
- 전북도 지역거점형 창업 거버넌스 사업 발굴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통과 함께 네트워크 가동 본격화
- 전북 농생명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팔걸어 붙여
-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진흥원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협력 도모
-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기업 모집
- 농수산식품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획경영



-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혁신기관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 강화

2 농생명산업육성



- 농생명·바이오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전통식품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전북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3 R&D 및 기술사업화



- 농생명·바이오 분야 R&D 사업 기획
- 지역 특화 소재 활용 고부가 R&BD 지원
-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4 수출지원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전북 농식품기업 B2B상담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 중소기업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5 생산·분석 지원



- 건강기능식품(GMP) 제형화 연구 및 생산 지원
-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등 품질분석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6 창업·일자리 창출



- 농생명·바이오 특화 창업보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현장 교육 및 실무형 우수 인재 양성
- 기업 맞춤형 고용연계 일자리 창출

2025 VOL.21

C / O / N / T / E / N / T / S

농생명바이오 지원시책 설명회	04
도내 농수산물식품기업 판로개척 활성화	05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본격 가동	06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유관기관장 나서 "전북바이오포럼"가동	07
전북도 지역거점형 창업 거버넌스 사업 발굴	08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통과 함께 네트워크 가동 본격화	09
전북 농생명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팔걸어 붙여	10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11
진흥원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협력 도모	12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기업 모집	13
농수산물식품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14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15
진흥원 안내도	16



2025 VOL.21

JIF NEWS
우리집 이야기

발행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행일 2025년 8월 전화 063-210-6500

홈페이지 www.jif.re.kr 주소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JIF NEWS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구독신청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바이오 지원시책 설명회 성황리 개최



김관영 지사 환영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염원 퍼포먼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월 6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환영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염원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 백승하 과장의 '25년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도정시책' 설명과 더불어 농식품 분야 최고 전문가로 한국식품연구원장과 바이오진흥원장을 역임한 김동수 원장님을 초청하여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최신 국내 및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었다.

또한 바이오진흥원 뿐만 아니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노사발전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기관별 지원사업이 총 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함과 동시에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다양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상담도 이루어졌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농생명·바이오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바이오 기업



상담관 열기 높아

도내 농수산식품기업 판로개척 활성화에 박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농수산식품기업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박람회 참가 및 B2B 상담회 개최 등 2025년 상반기에 총 14건의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5건,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 6건 등 총 11건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약 25.5억원의 매출성고를 올렸으며, 3회에 걸쳐 대형 유통사 초청을 통한 B2B 상담회 개최와 더불어 도내 농수산식품 우수 기업들과 농수산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및 영남권까지 확장하여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내 농수산식품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도내 식품기업들의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일산메가쇼 시즌1 참가



수원메가쇼참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북 공동관 운영



농수산식품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본격 가동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쿄식품박람회에서 전북홍보관을 운영하며 일본 바이어와 33만 달러 상당의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방콕식품박람회에서는 50만 달러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뉴욕팬시푸드쇼에서는 10만 달러 상당의 추어탕과 유자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상반기 동안 총 93만 달러(약 12.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루었으며, 미국 H마트와 일본 재일한국농식품 연합회 등 주요 해외 유통망을 통한 판촉 행사로 50만 달러(약 6.8억 원)의 추가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최대 한식품 유통사인 무궁화유통과 협력하여 전북자치도 홍보관을 운영,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세안 최대의 잠재시장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홍콩, 미국, 일본 등에서 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북자치도 농수산물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년도 해외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 관련 지원 문의 : 해외수출팀 (063-210-6593, 6596)



일본바이어 GENKI와 33만불 수출 계약 체결(팜조아)



태국 방콕식품박람회 상담 사진(50만불 계약, 김)



인도네시아 판촉행사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관



미국 H마트 연계 판촉행사 온라인 홍보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유관기관장 나서 “전북바이오포럼”가동



제1회 바이오포럼 주요내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함께 주관한 ‘제1회 바이오포럼’이 3월 26일(수)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바이오포럼은 바이오분야가 산업간 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미래첨단 산업국이 우리도만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분야 간 융복합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이오분야 혁신네트워크이다.

포럼에서는 ▲바이오 유관기관별 현안 공유, ▲바이오산업 애로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전북지역 바이오기관 간 지속 가능한 연계와 혁신 기반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학교 오명준 교수를 초청하여 ‘과학,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명준 교수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 속 기술혁신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조망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현재, 바이오포럼은 생명공학연구원 주관한 제2회 “생명공학연구이 추진 중인 국가 바이오 전략과 미래 연구 방향 공유”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도내 바이오 정책사업 추진 현황 공유와 공동협업 과제 발굴”을 주제로 열렸다.

바이오포럼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내 바이오 혁신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도 지역거점형 창업 거버넌스 사업 발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갈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25년 지속 지원을 위한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상은 3억원(1개소), 중은 2억5천만원(2개소), 하는 2억원(4개소)을 지원하는 2025년 국비지원에서 '상'등급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는 각 참여 기관 간 정보 및 인적 인프라의 효율적 공유와 기관별 특화된 역할 분담을 통한 혁신적 운영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하고 기술 및 사업 고도화, 투자 유치 역량강화, 창업 소외지역 컨설팅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심사의견을 제언해 주었다.

특히,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주)에프엘컴퍼니는 NS푸드페스타에서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과 이를 통한 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주)반석산업은 매출 24억에서 58억(242%)으로 고용 6명에서 18명으로 (300%)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도 프로그램을 보완 개편하여 최적의 맞춤형 창업기업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20개사 창업기업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형 창업 보육센터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본 사업이 지역 창업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전 J-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통과 함께 네트워크 가동 본격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영양교사 영양사 협의회 출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전북먹거리센터)의 공식 홈페이지(www.jif.re.kr/jbfood)를 새롭게 개설하고 온라인 기반의 통합 정보 제공에 나섰다.

홈페이지는 전북먹거리센터의 역할과 수행 사업, 활동,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운영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센터의 정보와 현장 소식도 함께 공유해 광역 먹거리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먹거리센터는 도내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19명을 '제2기 전북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영양교사·영양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LX파트너스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 바이오진흥원(전북먹거리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운영적 기반 마련 ▲기관 간 실무 협의체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공공급식 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등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진흥원-LX파트너스-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

전북 농생명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팔걸어 붙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규제특례 확대 의지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 사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을 성공시킨 사례로, 창업보육센터가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려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사업화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 전달을 이어왔고, 그 결과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입주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토계획법에 따라 연구·교육·사업화 구역의 용적률 상한이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여전히 폐수 배출 허용기준은 자연녹지지구의 경우 50㎡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입주 및 사업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폐수처리 기준 등 환경규제의 동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의 그린바이오산업 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기능성식품 규제해결 실험형 Test-bed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공유공장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의 의견은 바이오진흥원(유선. 063-210-6500 또는 이메일 jycho0709@jif.re.kr)에서 상시 접수를 하고 있다.



규제

농업·식품·바이오기업 현장애로

**규제 때문에
힘들어요!**

규제개혁 수요조사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보내 jycho0709@jif.re.kr
실곳 khlee@jif.re.kr

규제완화
현장의소리 청취

후보안
신청

심층인터뷰 및
관련법령 검토

규제완화
제안수립

관계부처
제출 및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jif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Jeonbuk Institute for Food Biotechnology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재생의학 및 푸드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세계적인 재생의학 연구기관인 터키 앙카라대학교 ElcinLab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직공학·줄기세포·생체재료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ElcinLab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재생의학 권위자인 야샤르 무라트 엘친(Ya ar Murat El cin)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 6명이 전북을 직접 방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공동 R&D, ▲기술이전 및 상용화, ▲연구 인력 교류, ▲국제공동과제 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제 중동권을 넘어 유럽권으로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6월 12일(목)에는 2024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한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 BIOTech Research Center의 클라우디오 밀리아레스(Claudio Migliaresi) 교수,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3B's Research Group의 루이 레이스(Rui L. Reis) 교수 등 유럽 재생의학 석학들이 전북을 공식 방문해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도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실증 전략을 공유하는 등 지역 기반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열린「전북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는 도내 푸드테크 관련 기업 10여 곳과 바이오진흥원, 국립식량과학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하여 ▲종자 및 원료 개발 ▲제품화 ▲인허가 ▲판로개척 등 사업화 전반에 걸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능성평가 및 임상시험 ▲해외 인증 지원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7월 2일에는「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이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의 Ren Wijffels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대체육 대량 생산 전략 ▲글로벌 대체단백질 산업 동향 ▲버섯배양육·고수분 대체육·해조류 활용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포럼에는 국내외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실증 기반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으며, 향후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일련의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전북의 바이오·푸드테크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증 기반의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lcinLab Researchers



업무협약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포럼

진흥원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협력 도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3월 4일(화) 입주기업 28개사 대표 및 임직원들과 함께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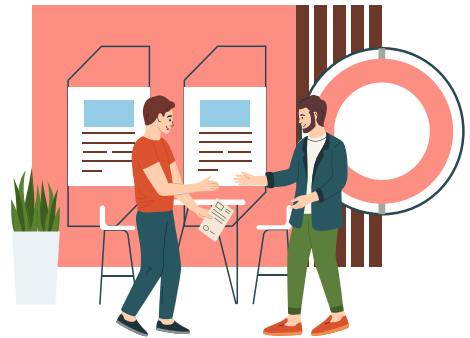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창업기업 지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GMP생산 및 품질분석 지원 등 ONE-STOP 지원체제로 탄탄한 보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개사의 신규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여 현재 총 28개사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바이오진흥원 임직원과 입주기업 대표자들 간의 소통 및 교류의 시간을 갖고, 전년도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 입주기업은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멘토링, 제품고도화, 시장판로개척, 현장애로해결 지원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116.5% 상승, 고용 106.3% 성장, 신제품개발 22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총 8건의 수상실적을 획득하였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수주한 특화역량 비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에도 추가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여 입주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선출된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인 반다크브라운 박희선 대표는 “입주기업 간 브랜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입주기업의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기업 모집

- 사 업 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대상 :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관련 기업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 교육내용 : 식품법규, 표시기준, 등 바이오융합산업 분야 19개 과정(선택과정)
- 지원내용 :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료증 발급
- 교육정원 : 과정당 12명 내외
- 신청분야 및 방법

구 분	① 집체교육	② 기업방문교육
교육장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또는 지정 교육장	기업현장
교육과정	19개 과정 중 희망과정 선택(복수 신청·수강 가능)	
교육인원	과정별 12명 내외	과정별 12명 내외 ※ 2개 이상 기업 동반 참여 가능
교육시기	교육센터 과정 개설시 ※ 매월 15일 신규과정 오픈 (예_1월 15일 : 2월 과정 개설)	연중 신청가능 기업희망 일정 사전 협의
신청대상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재직자	교육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 또는 사내 교육운영 담당자
신청방법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별 신청 (www.jife.re.kr)	이메일 접수 (yang2@jif.re.kr)

- 문 의 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창업일자리팀(063-210-6581)



▲바이오융합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수산물품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 사 업 명 : 2025년 농수산물품 수출바이어 초청 상담사업

○ 사업기간 : 2025.02.05. ~ 2025.12.31

○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농수산물품 제조·유통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 수출 바이어 초청 수시 수출상담 관련 바이어 초청 경비 *홈페이지 참고

구 분	지 원 항 목	지원내용
수 출 바 이 어 초 청 경 비	숙 박	◎ 지원한도 : 각 신청당 80만원 이내 ◎ 정산기준 : 1객실 기준 20만원 이내(최대 2박 2객실) * 숙박비(조식 포함)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은 정산 제외
	회 의 비 (식 비)	◎ 지원한도 : 각 신청당 30만원 이내 ◎ 정산기준 : 1식 25,000원/ 이내
	통 역	◎ 신청서 제출 시 진흥원에 요청 → 진흥원 직접 섭외 및 정산 * 기업개별 추진 시 지원불가

※ 상세 정산기준 <붙임1> 지원기준 참조

○ 지원절차 :



※ 진흥원 직접운영 신청시(지원신청서) 진흥원 자체 추진 가능(자세한 사항 문의처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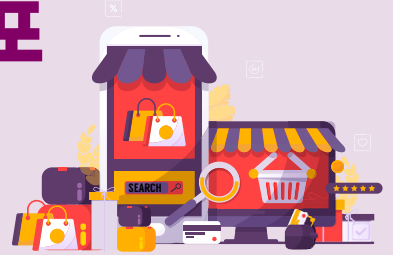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연락 요망

○ 문의·접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해외수출팀

E-mail, hj@jif.re.kr / Tel. 063-210-6596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준비 박차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03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발효식품 가능성에 주목하고 발효식품산업의 생산·소비 확충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전시회로, 지난 22년간의 개최를 통해 B2B/B2C 통합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및 소비자 매출확대, 바이어와 참관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 발효식품 본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선점하고 각인시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딩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개국 350개사 428부스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B2C 현장매출 19.5억원, B2B 수출상담액 227억원, 경제파급효과 64.3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컨벤션이 없는 야외행사임에도 국내 무수한 전시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제전시회로 13년 연속 인증(2011-2023, 도내 유일 국제인증전시회) 받아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 MICE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 2024)는 브랜딩 확산, 마케팅 강화, 콘텐츠 확장, 운영 고도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우수 바이어 및 우수 참가기업 유치 확대를 행사 품격을 높이고 기업들의 매출 활성화와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참가기업들의 니즈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참가사 브랜드 성장을 돕는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14개 시군 특별 홍보관을 조성하여 푸드테크 등 미래 신기술과 잠재 소비자 확보를 위한 전시 DP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전시 비주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연계 개최를 통한 시너지 확대를 농식품산업 역량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시설물 등에 친환경 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및 친환경 생분해 용기 사용 확대를 통해 ESG 실천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식품산업 수도로 확실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내 농수산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더불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명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매우 중요한 행사로 참가기업, 바이어, 참관객 모두가 만족하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기업 참가 및 문의 : 063-210-6590(기업지원팀)

진흥원 안내도

본관(첨단바이오·식품센터)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 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 연구개발 공간

식품분석센터



-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 영양성분 등 특정검사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 GMP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 기술력 위주의 유망기업 입주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 입주
- 온라인 화상상담실

비즈니스센터



- 도내 식품기업 상품 전시관
- 바이어 상담실
- B2B 화상 상담실

찾아오시는길

